

# 탄력성(resilience) 관점에서 조명한 북한이탈여성의 생애 연구: 북한과 중국에서의 생활을 중심으로

김현경\*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여성이 난민이주자로서의 역경과 고난을 견디어내며 생존가능하게 해 주었던 강점으로서의 탄력성의 의미를 탐색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그녀들의 생의 탄력성을 조명하고자 함이다. 자료는 본 연구의 질문인 ‘북한이탈여성의 북한과 중국 생활에서의 탄력성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생애 경험이 담긴 텍스트에서 수집한 자료를 상호주관적 삶의 역동성과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파시(Parse)의 현상학적-해석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과 중국 생활에서의 탄력성이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일탈로서의 탈북이며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해체로서 삶을 향한 애착과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고, 숫구치는 한을 끌어안는 것’이라는 구조로 나타났다. 구조를 전환시키면 ‘폐쇄해진 일상에서의 새로운 도전으로 관계성을 활용한 생존기회를 구축하고, 과거를 묻으며 강인성으로 버티내며, 과거의 응어리를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석은 파시의 추상성 높은 개념으로 통합하여 가치화를 가능-제한시켜 강화성과 변형성의 과정으로 재해석되었다. 끝으로 논의와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북한이탈여성, 탄력성, 북한, 중국, 파시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

---

\*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borry52002@naver.com

『젠더와 문화』 제4권 2호(2011) pp. 7-36

© 2011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 1. 서론

북한이탈주민 남녀의 남한입국 경향은 2006년부터 75% 이상이 여성이며 20-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통일부, 2011). 특히 북한이탈여성은 탈북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제3국에 체류하면서 성폭력, 인신매매로 인한 매춘, 무국적자로서 중국남성과의 사실혼관계 및 사생아 출산 문제 등을 겪게 되어 남한 입국 후에도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신체질환을 남성보다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영·김현경,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장기거주하게 되면서 그러한 증상들은 점차 회복되어 가는데(김현경, 2007, 2009), 그러한 북한이탈여성의 회복력 특성으로서의 탄력성(resilience) 발휘에 기간이 될 수 있었던 생애 경험이란 어떠한 것인지 드러낸 연구는 거의 드물다. 환경 속에 인간인 대상자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과거 경험에 대한 선(先)이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난민이주자인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현재도 국내외적으로 인권적 개입이 요구되는 대상일 만큼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음이 분명하고, 2010년에만 북한이탈여성의 남한 입국은 77%를 구성할 정도로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여성이 난민이주자로서의 역경과 고난을 견디어내며 생존가능하게 해 주었던 강점으로서의 탄력성이란 어떠한 의미였는지 탐색하고 그녀들의 탄력적 강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성주의 실천에 기반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대한 질문은 “북한이탈여성의 북한과 중국 생활에서의 탄력성이란 어떠한 것인가?” 이다.

## 2. 문헌고찰

### 1) 탄력성의 관점

‘탄력성’이란 긍정적 대처, 적응, 그리고 지속성과 맞물려 사용되고 있다. 탄력성이란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 외상, 스트레스 그리고 위협의 다른 형태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거나 또는 눈에 띄게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서 과도한 역경 상황에서 무엇이 개인으로 하여금 잘 기능하도록 돕는지를 안다면 그 지식을 실천 전략들에 통합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탄력성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①생물·심리·사회적이며 영적인 현상. ②인간과 환경 교환의 상호교류적 역동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적합성의 적응과정을 포괄. ③독특한 발달행로를 경험하면서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전생애 과정에서 발생. ④생활 스트레스와 사람의 독특한 대처 능력과 연결. ⑤일상 기능에서의 역량을 포함. ⑥하나의 연속선상에 있을 수 있으며 위협의 반대측면에 위치. ⑦위험요인과 조합하여 효과를 가지면서 상호작용 할 수 있으며, 권력차이의 영향 받음. ⑧인종, 민족, 성별, 연령, 성취향, 경제적 지위, 종교적 연계, 그리고 신체 및 정신적 능력을 포함한 다양성에 의해 영향 받음. ⑨가정, 학교, 또래집단, 이웃,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를 포함하는 인접 및 원거리 모두의 다중수준 애착에 의해 표현되고 영향 받음. ⑩환경 자원의 가용성의 영향을 받는다. 나아가 탄력성은 강점관점 측면에서 클라이언트의 능력, 역량, 지식, 생존기술, 비전, 가능성, 희망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생애과정, 관계성,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체계들, 교류, 다양한 지역사회와 삶의 발달에 조화되는 실천을 강조한다(양옥경 외 옮김, 2004).

## 2) 북한이탈여성의 북한과 중국에서의 생애 관련 선행연구

북한사회문화에서는 최고지도자인 수령의 권위가 곧 법이며 규범으로 규정하여 가부장제적 가장의 이미지를 국가수령과 가정의 남성에게 적용시켜 안혜(아내)는 혁명적 현모양처의 도리와 공경을 다해야하며, 인민군 대와 병사들의 어머니로서, 고아의 어머니로서, 호부호녀로서, 사회주의 혁명의 역군으로서 기능해야했다. 이는 북한여성에게 모성이데올로기의 실천과 사회경제활동에 기여하는 노동생산자라는 이중고통을 부여하는 사회문화체계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북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모성보호 조치는 열악해졌고,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내몰렸으며 그 과정에서 탈북하여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안의 추격과 불법체류자의 지위를 악용하는 브로커와 현지인 등으로부터 착취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교화소 등의 수감생활 또는 국경을 넘는 과정, 제3국 체류 중에도 죽음에 직면한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지만 특히 생존을 위한 매매결혼과 성폭력의 위험요인에 노출된다는 점이 북한남성과는 구별되는 트라우마 요인이 되고 있다(이애란, 2008; 최진이, 2005). 생계가 가능치 않은 상황에서 여성의 성(sexuality)은 다른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자신과 가족생계를 위해 몸을 팔아야 하고 성폭력도 감내해야하는 여성들은 그 자체로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여성에 대한 박해는 성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1995년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에 대한 성폭력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이를 생명권을 위협하는 젠더박해로 규정하고 있다(민지원, 2003). 최근 연구들(민지원, 2003; 박정현, 2006; 심영희, 2006; 이승진, 2005; 이화진, 2010)에서는 인권문제가 주요이슈로 부각되면서 북한여성들이 극심해진 식량난으로 인해 생계부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생존권, 경제활동권, 결혼과 가족, 몸과 성에 대한 권리, 강제송환

과정과 인신매매 등 다양한 맥락에서 북한이탈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여성주의 시각에서의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3) 북한이탈여성의 탄력성과 생애 관련 선행연구

북한이탈여성에 관련된 대다수의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그녀들의 생존과정에서 발휘하게 되는 탄력성을 중심으로 실행된 연구는 거의 드물다. 최근 김태현·노치영(2003)은 재중 북한이탈여성의 삶을 다루고 있는 질적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여성의 생존전략의 의미를 드러내었다. 분석 결과로 ‘중국여자로 위장하기’, ‘감정드러내지 않기: 조선여자임을 인정하고 참고 살기’, ‘결혼하기’, ‘임신을 보류하기’, ‘주위 사람을 경계하기’, ‘또 다른 탈출구를 찾기’로 정리하고 있다. 물론 관련 연구자는 그와 같은 분석 결과에 북한이탈여성의 탄력성을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북한이탈여성들이 중국에서 불법신분자로 생존하기 위해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는 방편으로서의 탄력성을 보여준다. 사회관계적 지지망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남성과 결혼하거나, 버림받지 않기 위해 중국남성과의 결혼생활에서 고분고분하게 감정을 삭여야 하고, 헌신적 모성 이념을 갖고 있으나 중국에서의 불안정한 결혼생활을 인식하고 임신을 조절하며, 신분노출을 감추기 위해 주위 사람을 경계하고, 임시거처인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행을 고려하는 행위들은 북한이탈여성에게 노출된 위협요인들에서 최대한 벗어나 삶의 희망을 성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역동과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북한이탈여성 작가의 생애 수기(최진이, 2005) 내용을 바탕으로 비록 고단했던 북한과 중국에서의 삶 속에서 나타난 탄력적 생의 역동의 의미 구조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1) 파시(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론

파시의 ‘인간되어감 이론’은 현상학적-해석학적 연구방법론이며 여기서 ‘되어감’은 가능성을 가지고 초월하는 상호주관적 과정과 인간 드러냄이라 하였다. 북한이탈여성을 독특한 상황적 존재로서 인정하고, 그녀가 자신의 환경과 함께 변화해 가는 의식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과 방법론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인간은 상호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실을 공동 구성하며, 새로운 관계 유형을 공동 창조하면서, 우주의 영역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공동 초월한다고 보며,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에 따른 기본적인 세 개의 원리와 아홉 개의 개념은 <표 1>에서 설명하고 있다(Parse, 1992).

<표 1> 인간되어감의 원리

원리	원리 내의 개념
1. 다차원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은 가치화와 상상화의 언어화를 통해서 현실을 공동 창조하는 것임	상상화는 동시에 명백한-잠잠한 앎을 알도록 하는 반성적-전반성적인 앎의 과정임
	가치화는 개인이 자신의 세계관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대하여 순응-불순응하는 과정임
	언어화는 말함-조용히 있음과 움직임-정지함을 통해 가치화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임
2. 율동적인 관계형성의 패턴을 공동 창조한다는 것은 노출-은폐, 가능-제한, 연결-분리의 역설적인 단일체로서 살아가는 것임	노출-은폐는 동시에 열려있는-닫혀있는 것임
	가능-제한은 선택하는 모든 것에는 기회-제한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임
	연결-분리는 타인, 사고, 사물과 상황과 함께 있는 동시에 떨어져 있는 것임

원리	원리 내의 개념
3.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공동 초월한다는 것은 변형과정에서 자신의 독창성을 독특한 방식으로 강화하는 것임	강화성은 비존재의 측면에서 존재의 확인-미확인하는 추진-저항의 과정임
	독창성은 삶의 확실성-불확실성 속에서 순응-불순응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는 것임
	변형성은 익숙함-생소함의 관점이 변화하는 것으로서, 신중한 방식으로 새로운 견해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변화에 대한 변화의 과정임

자료: From the Human becoming school of thought(pp. 35-58), by R. R. Parse, 1998,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노춘희 외, 2007: 40에서 재인용.

(1) 원리 1: 인간이 경험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현실을 구성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의미(Meaning)를 가치화(Valuing), 상상화(Imaging), 언어화(Languaging)를 통해서 공동 창조한다. 가치화란 신념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과정으로 순응(confirming)-불응(not-confirming)이라는 역설적인 면이 있다. 상상화는 명백한 삶과 잠잠한 삶의 과정을 통해 관념이나 사건의 실체를 그리거나 구성하는 역설적 면을 갖는다. 언어화는 말함-조용함, 움직임-정지함을 통하여 의미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인간은 언어화를 통해 타인과 독특한 현실을 상징화하고 의미를 공유하게 된다.

(2) 원리 2: 우주와 함께 되어감의 방식을 역동적이고 율동적(Rhythmicity)으로 공동 구성한다. 관계의 율동적 패턴은 노출-은폐, 가능-제한, 연결-분리로 구성된다. 노출-은폐란 과거에 받아들인 생각, 감정, 신념, 언행 등을 드러내거나 감추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행동과 목적을 구체화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가능-제한이란 소중히 여기는 신념을 확인하고, 가능과 제한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을 선택하여, 고유한 인간이 자신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결-분리란 한 현상과는 연결되고 다른 현상과는 분

리되면서 개인의 독특한 현실을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상징화함으로써 환경과의 공동참여를 통해 일어나는 변화이다.

(3) 원리 3: 익숙한 것과 생소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가능성들을 공동 창조하는 것이다. 인간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을 열망하며 그것을 초월하려는 것을 말한다. 초월성(Transcending)은 개인의 독창성(Originating)을 독특한 방식으로 강화성(Powering)과 변형성(Transforming)을 이루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 2) 파시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론의 분석과정

### (1) 추출-종합과정(extraction-synthesis)

체험의 본질(의미)를 묘사하는 파시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과정은 다음과 같다(Parse, 1992, 2001).

- ① 참여자의 언어를 적은 기록에서 그 경험의 주요내용을 추출한다.
- ② 추출된 주요내용을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한다.
- ③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한 추출내용에서 언어-예술(language-art)을 만든다. 참여자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언어화 한 것을 '언어-예술'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의 '예술'적 요소로서 삶에 대한 개인의 관점을 존중하고자 함이다.
- ④ 만들어진 언어-예술에서 핵심개념(core concept)을 다시 뽑아낸다. 구조(structure)는 언어-예술의 중심 의미인 핵심개념을 구조화한 관념이다.
- ⑤ 추출된 구조를 체험의 구조로 전환시켜 종합한다.

### (2) 발견적 해석(heuristic interpretation)

해석 과정은 체험의 구조를 이론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며 논리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창조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은 구조적 통합과 개념적 해석과정을 거친다. 구조적 통합과정에서는 형성된 구조를 인간되어감 이론의 구조로 통합하고, 개념적 해석과정에서는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을 사용하여 체험의 구조를 구체화한다. 본 연구자는 총체적인 느낌으로 북한이탈여성의 북한과 중국에서의 탄력적 삶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북한이탈여성 작가의 수기(최진이, 2005) 내용을 구조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과 연결하였다.

### 3) 본 연구의 설계

인간되어감 방법은 인간 경험에서 나타나는 텍스트나 예술형태(artform)로부터 의미 구조를 발견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텍스트나 예술 형태와 끊임없이 통찰력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고요한 시선으로 해석하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이해하려는 것이 중요하다. 파시는 이러한 과정을 연구자와 해석가의 대화(dialogue)라고 명명하였다(Parse, 2009).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 작가가 북한과 중국에서의 생존과정에 발휘하게 된 탄력성이 담긴 텍스트를 파시의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인간되어감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인간 삶의 변화패턴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헌에서 기술된 인간의 경험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Parse, 1992).

### 4)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북한의 가부장적 군사문화와 장기간의 고난의 행군에 따른 굶주림의 시련을 겪으면서 탈북을 결심했던 40대의 북한 여성 작가 최진이다. 그녀는 『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라는 자서전 기록을

통해 개인생애를 정리하면서 북한과 제3국에서 여성으로 살아왔던 시절을 반성적으로(reflective) 회고한다. 1999년 남한에 아들과 함께 입국하였고 국내 대학에서 여성학을 전공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5)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이 북한 및 제3국에서의 삶의 실제(reality)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자서전적 기록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2차 자료 수집의 경우 비관여적 자료수집 방법이기엔 연구자와 참여자간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는 제한점이 있다(황성동, 2007). 이에 질적 연구들 중 키르쉬(Kirsch)는 이민여성의 자서전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 해석학의 사례로 활용하였으며, 아우펜앙거(Aufenanger)는 미디어 연구에서 해석학적 사례를 재구성함으로써 재구성적 방법을 위한 자료토대로 활용하였다(이효선, 2005). 체험적 자료로서 자서전적 기록이야말로 개인의 체험을 깊이 있게 담고 있는 자료라고 판단되었다. 북한이탈여성이 한 여성으로서 감추고 싶은 은밀한 치부까지 고스란히 들어내고 있는 체험적 자서전을 발간한 생존자는 현재까지 거의 드물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생존을 향한 집념과 탄력성을 잘 담아낸 그녀의 생애기록은 본 연구자가 의도한 연구 질문에 적합한 자료라고 보여졌다.

#### 6)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구바와 링컨(Guba and Lincoln, 1981)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네 가지 평가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기

반하여 연구의 엄밀성을 따르고자 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 측면의 반영을 위해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 및 국제난민이주자에 관한 전문서적, 영화·다큐, 북한이탈주민 관련 인터넷 사이버 웹의 자료 등을 꾸준히 접하면서 본 연구대상자가 진술한 내용과 비교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적용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북한에서 출생하여 남한에 입국하기 전까지 본국과 제3국에서 생활한 북한난민여성으로서 과거 자신의 체험을 풍부하게 전달해준 기록물, 텍스트에 초점을 두었다. 셋째, 일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자료에서 발견될 주제와 범주에 대한 분석적 사고를 위해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의 핵심개념이 발견되고 구조가 어느 정도 도출되었을 때, 북한 여성의 보편적인 생활과 탈북과정에서 여성들의 체험에 대한 지문을 받음으로서 효과적인 감사(auditability)를 이루고자 하였다. 본 연구주제가 남한 입국 이전에 북한 및 제3국에서 살아가는 북한출신 여성들의 삶의 탄력성을 이해하는데 있기에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는 북한여성의 지문을 받았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의 경우, 본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으로서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등을 연구(김현경, 2007, 2009, 2010; 김현경 외, 2009, 2010; Kim and Lee, 2009, 2010; Kim, Lee and Baumann, 2011)한 바 있다. 난민이주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독특한 경험체계가 주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그들의 공통점만큼이나 상이성도 다양하다는 경험은 본 연구자가 북한이주민에 대해 가졌던 스스로의 가정에서 벗어나 판단중지(Epoche)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북한이주민 관련 인터넷(탈북자동지회, 새터민들의집터, 좋은벗들 등)에 게시된 북한이탈여성 체험기록, 영화·다큐, 전문서적, 학술논문 등을 접하면서 그녀들의 삶의 질곡과 생존과정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구술 및 핵심 개념

분석의 첫 과정은 우선 대상자의 언어를 적은 기록에서 그 경험의 주요내용을 추출한 후, 추출된 주요내용을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한다. 이후 언어-예술을 만들어 개념화 작업을 하는 것이다(Parse, 2009).

<표 2> 대상자의 구술내용-구술추출내용-연구자언어로 종합한 내용

대상자의 구술내용	대상자 구술을 추출한 내용	대상자 언어로 종합한 내용
<p>평양서 작가 반 대학을 졸업하고 30대에 아들 둘과 노모가 있는 나이 차이 많은 남성의 재취로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서 여성과 시인으로서 원숙함을 느꼈다. 시문학분과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벌인 여성시인 시 창작 경기에서 아기를 소재로 한 나의 시가 가장 큰 호평. 전처의 아들은 '고난의 행군'에 집 안 물건을 제멋대로 팔아 속을 썩였다. 남편에게 내가 낳은 아들과 둘이 살만한 집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이혼을 요청했다. 생존전쟁은 시작. 청진시 신암구역에 거주를 붙이려 했으나 아내의 남편의 거주지를 따라가야 한다는 규정을 깨닫는 데 한 주일이 걸렸다. 교원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이혼을 염두에 둔 여자는 교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쌀도 돈도 떨어졌다. 청진역에서 사는 수밖에. 첫 날 역에서 날이 어두워지자 대기실은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의자에 못 앉은 사람들은 때가 새까맣게 낀 시멘트 바닥에 비닐이나 형철 보자기들을 펴고 눕거나 옷 입은 채 맨바닥에 누었다. 역사가 소동되니 벼루지들이 옷 속으로 기어들어 보리알만한 이가 잡혀. 거지나 꽃제비가</p>	<p>평양서 작가 대학 졸업 후 재취로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원숙함을 느끼게 되어 시 창작에 도움이 되었으나 시집 식구들로 속을 썩어 이혼을 요청함. 이혼을 염두에 두고 생존을 위해 교원자리를 알아보았으나 이혼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아내는 남편거주지를 따라야 하는 규정에 따라야 함. 쌀과 돈이 없어 청진역서 자야하니 발디딜틈 없는 공간에 냄새와 벼루지를 견디며 거지나 꽃제비로 지냄. 역광장서 시체를 보았으나 사람들의 감정은 무감각하여 시체</p>	<p>대학졸업 후 재취로 결혼해 자녀를 출산하니 작가로서 생의 원숙함을 느낄 수 있었으나 시집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됨. 이혼 여성에 대한 낙인과 여성은 남편거주지에 살아야 한다는 규정을 파악하는 동안 노임과 식량을 모두 써버려 결국 기차역 노숙자생활로 버티어 가고 시체와 벼루·이와 같은 비위생적 환경과 고통 받아 결국 탈북을 결심함.</p>

대상자의 구술내용	대상자 구술을 추출한 내용	대상자 언어로 종합한 내용
<p>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역전 광장에서 죽은 사람을 보았다. 시체 바로 곁 전주에 배당을 기대놓고 아낙들이 밥을 먹고, 시체 발꿈치 쪽에 누워 자는 사람. 감정이 무감각해진 상태. 청진역에서 자고 굶지 않을 만큼 먹으며 이혼 수속에 전념. 검찰소(법원)의뢰서가 애매하여 결국 이혼이 안 돼 오도 가도 못하고 죽는 길 밖에. 재판 담당관사를 다시 만나려고 기다리던 중 브로커를 만났다. 사실 20여 년 전 북조선 정치의 허위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탈북은 나의 최고 소망.</p>	<p>옆서 밥을 먹을 정도였음. 청진역에서 자면서 이혼수속에 전념했으나 법적 이혼이 안 되고 북조선 정치의 허위성을 깨달아 소망했던 탈북을 결심함.</p>	
<p>아버지가 새 아내를 얻으면서 나는 ‘교양 개조되어야 할 대상’으로 비쳐 쫓아내려 수를 동원하여 나의 월향여자합숙소(평양에서 독신 여성들의 공동 주거 시설로 한 호실에 대어섯 명씩 약 1500명 합숙. 노동자에서 교원, 배우, 체육인, 연구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며 식사는 식당에서 공동 제공) 입숙 허가를 받아냈다. 나를 독립적으로 만든 가족의 두 번째 해체였다. 북한 남편과 법적 이혼은 안 되고 생계는 막막하여 결국 나는 브로커에게 한족한테 시집하게 해달라고. 브로커는 한족사람에게 인계해주는데 나이를 네다섯 살씩 낮추어 말하라고. 나는 대상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중국에서 남자들이 여자보고 성관계 하자고 할 때 한족말로 ‘파이’라고 한 대. 기억해두고 있어.” 동행자 여인이 입을 열었다. 도강해오는 조선여자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성을 제공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1998년 7월 10일 나는 도강을 원하는 여인과 함께 강을 건너기 안전한 저녁까지 기다려야. 준비해둔 끈을 꺼내 신발을 푹푹 묶었다. 물을 건널 때 신발이 벗겨질 수 있다며 도강 경험이 있는 여인이 알려준 방법. 저벅저벅 자갈밭을 밟으며 강물에 들어섰다.</p>	<p>재혼한 아버지는 나를 교양대상으로 보고 월향여자합숙소로 보내 두 번째 가족해체와 동시에 나를 독립적으로 만들. 북한 남편과 법적이혼이 안 되어 생계를 위해 성을 제공할 각오로 한족에게 시집가기로 함.</p> <p>1998년 7월 신발 끈을 묶고 어떤 여인과 도강을 하는데 보초병의 외침을 뒤로하고 빠른 물살에 정신이 혼미해진 나의 손을 함께 간 여인이 꼭 그러줘주어 강을 건넜으나 극도로 허약해진 몸과 정신</p>	<p>재혼한 부친과의 갈등이 깊어져 여성공동합숙소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오히려 자신의 독립적 생활에 시작이 됨. 생존을 위해 스스로 한족과의 매매혼을 결심하였고 첫 도강에서서 함께 건넌 여인의 굳건한 지지가 도움이 되었으나, 애정없이 간혀사는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브로커와 탈출하다 공안에 걸렸으나 다행히 북한에 들어가 이들을 중국으로 데려올 수 있게 됨.</p>

대상자의 구술내용	대상자 구술을 추출한 내용	대상자 언어로 종합한 내용
<p>일곱 여덟 걸음 들어섰을 까 “서라! 아, 서라!” 뒤쪽에서 보조병이 뛰쳐나와 외치는 모양. “일단 물에 들어선 담엔 뒤에서 암만 소리쳐도 돌아보지 말고 뛰러요! 물에만 들어가면 못 따라와요.” 브로커 말을 떠올렸다. 빠른 물살에 몸뚱이가 사정없이 떠내려가 정신이 혼미. 내 손을 잡고 걷던 여인이 내 손을 꼭 그러쥐었다. “일없어, 기운 내라, 조금만 더 가면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서 브로커가 함께 도강할 여자를 찾았던 것. 드디어 발바닥이 땅에 닿았다. 먹지 못해 몸이 극도로 허약해진데다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정신적 부담까지 며칠째 안고, 심장은 비틀어 짜는 것처럼 아프고 바짝 타들었다.</p> <p>중국 길림시 주변 농촌의 한족 남자와 매매 결혼. 조선말은 한자도 쓸 수 없고 마을 밖은 벗어날 엄두도 낼 수 없는 막막한 생활이 시작. 꼭 두 달이 지나 1998년 9월 어느 날 나를 결혼 주선한 남자가 찾아왔다. 재미있냐는 말에 막 미칠 것 같다고. 그는 조선족이 많은 지역에 다시 소개해 준다고. 나는 굶은 비가 창유리를 깨뜨릴 듯 들이치는 날 밤 도망쳤지만 나를 데리러오기로 한 자동차와 같이 어긋나 결국 한족남자의 형에게 붙잡혔다. 마을 한족들은 브로커와 내가 연변에서 짜고 온 조선족 부부로 의심하고 몰매. 경찰차가 들이닥쳐 나는 경찰차에 올랐다. 중국안전위원회에서는 나의 남편(원자력핵발전소 설비 수입전문가)을 중국으로 데려오는 조건으로 풀어주었다. 나는 강을 건너 강냉이 밭 속에 들어가 숨을 가라앉히고 다시 칠송리 국경초소 길에 들어섰다. 함께 걷던 노파가 초소를 에도는 길을 알고 있어서 무사히 지날 수 있었다. 용제리에 들어 남편에게 아들을 데려오라는 언</p>	<p>적 부담으로 심장이 바짝 타들어가고 목에서 비린내가 풍길 정도였음</p> <p>.</p> <p>중국으로 건너와 한족남자와 매매결혼을 했으나 조선말을 쓰지 못하고 마을 밖을 벗어날 수 없는 막막한 생활로 미칠 것 같을 때 브로커가 찾아와 조선족남성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으나 한족에게 붙잡혀 경찰차에 올라탤. 중국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핵전문가인 남편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풀어주었으나 남편의 탈북 거절로 아들만 데리고 안내자의 도움으로 탈북하여 중국 땅 강기슭에 올랐으나 북조선여자를 잡기위해 강둑에 앉아있는 사람장사꾼들을 보게 됨.</p> <p>농촌 조선족남자를 소개받아 온몸이 배고고 저려들어도 샅일과 집안일을 했으며, 내가 집을 떠날까 염려했던 주인친</p>	<p>조선족남성을 소개받아 고된 가사노동으로 일상을 보내나 중국시민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정착보다 늘 떠날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으나 당시 공간이 농촌가정을 불시 검문하여 탈북여성에게 무거운 벌금을 내게 하여 쫓겨남.</p> <p>아내를 원하는 다</p>

대상자의 구술내용	대상자 구술을 추출한 내용	대상자 언어로 종합한 내용
<p>락을 떠났다. 남편은 중국안전위원회가 합법적 절차로 부르면 요구에 응하겠지만 그전엔 그럴 수 없다고 동행을 거부. 아들만 데리고 가는 수밖에. 도강안내자를 소개받아 다음날 저녁 무사히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 강기슭에. 안내자는 저기 강둑에 앉아 있는 남자들이 북조선에서 건너오는 여자들을 잡기 위한 사람 장사꾼들이라고 가르쳐주었다. 안내자가 나를 중국 농촌 조선족에게 소개. 주인남자는 얼굴도 못 익힌 내게 짜증조로 지시. 사흘쯤 빨래며 집안 정리하니 이웃집 과수원 배따는 샅일을 해 달라 제의. 터진 배개를 손질하고 마진 옷들을 깎고 하는데 잔등이 못 견디게 저려들었다. 샅일 요청이 오면 나갔고 벌어오는 돈은 주인남자 딸아이의 학비로. 주인남자 친척들이 일본 삼촌에게서 연락이 와 떠나면 뭐가 되느냐 한탄. 내가 가고 안 가는 문제는 집 주인에게 달렸으니 중국에 안착하여 살겠다하여 주부 역할만 해나갔다. 교양이 전혀 안 된 그 집 애들에 대해 요구성을 높이자 그는 내가 자기 아이들을 미워한다고 생각. 한 달 쯤 되는 날 이웃 아낙이 자기 집으로 가자고. 사나흘 전 탈북여성을 데리고 살던 너댓집이 공안에 불려가 벌금을 내고 나왔다하니 두려웠던 것 같다.</p> <p>아낙 집에서 사흘째 되는 날 웬 남자가 홀아버라며 나와 살고 싶다고. 남의 집 군식구보다 아내라는 명목이 떳떳해 보였다. 그는 일본 삼촌에게 갈 편지에 “뭐라고 썼어?”. “살아온 그대로 썼지요.” 그는 편지를 가져오게 하여 읽어보고 “이 바보야, 창피하지도 않아? 팔려갔던 걸 그대로 쓰면 뭐라고 하겠어? 이 가련한 것아.” “난 가련하지 않아요. 팔려갔던 건 내 죄가 아니에요. 난 뜻이 있는 여자예요” “네 따위가 뜻은 무슨</p>	<p>척에게 안착해 살겠다하고 주인자녀의 교양을 높이자 아이를 미워한다며 대신 이웃 아낙이 자신의 집으로 나와 아들을 데리고 감. 마을에서 탈북여성과 사는 사람들이 공안에 불려가 벌금을 물어 주인남자가 두려웠던 것 같음.</p> <p>아내라는 명목으로 떳떳하게 살기 위해 같이 살자는 조선족 남자를 따라 갔으나 나와 아이에게 쉽게 매질을 하였고, 주인남자가 서러면 서고 앉으라면 앉아야 했던 세월을 꼭 눌러 자제하며 그 소굴에서 벗어나길 기도로서 간청함.</p> <p>탈출을 마음먹은 나를 갈겨대 온몸은 피와 땀투성이가 되었고 무서움에 질린 아미마저 죽이려 가족</p>	<p>큰 조선족 남성과 동거하였으나 가정 폭력과 모멸감으로 고통의 날들을 기도로 참고 견디어 나갔고, 생존에 위협이 되는 폭력을 휘두르니 견디지 못해 탈출을 시도하여 조선족 운전기사와 중국 내 교인들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의 기회를 얻게 됨</p>

대상자의 구술내용	대상자 구술을 추출한 내용	대상자 언어로 종합한 내용
<p>뜻이야?” 말이 채 끝나기 바쁘게 주먹은 나의 입과 양볼, 콧가를 사정없이 갈러댔다. 뿔시를 공공연히 표현. 술에 취해 내 머리 끄덩이를 쥐고 질질 끌며 내 얼굴을 올려쳐 입술이 터지고 코피가. 자다 놀라 깨어난 아이가 이 광경을 보았다. 그는 파리채로 아이 얼굴을 아래위 양옆으로 쳐댔다. 아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안타깝게 쳐다보았다. 그 연한 얼굴 위로 채찍자리가 짹짹. 나는 아이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라!” 하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종아리로 머리로 줄매가 쏟아져. 이를 악물고 손으로 머리를 싸낀 채 내리치는 온 매를 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을 알아? 내가 누구야?” “내 남편이에요 진정해요” 그가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아야 하는 날들. 꼭 눌러 자제하였다. 그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 바닥에 엎드려 꿇임없이 기도를 드렸다. “하느님! 오늘이 이 소굴에서의 마지막 밤이 되게 하여 주세요!”</p> <p>평상시 탈출을 마음먹었던 내게 남자는 “나한테서 달아나면 영웅이야!”소리를 질러가며 나를 갈겨댔다. 나의 온몸은 피와 땀투성이. 밖에서 무서움에 질린 아이가 발이 시리다 울었다. 남자는 순간 나를 때리느라 휘둘렀던 채찍질을 멈추고 밖에 있는 아이에게 가죽 혁띠를 휘두르며 ‘이놈의 새끼, 죽어봐라’. 나는 일 초도 안 되는 그 순간, 맨몸으로 탈출해야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아이가 조금 더 맞는 날엔 죽든지 정신 이상이 될 것 같았다. “가만!” 나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자가 주춤. 나는 밖으로 뛰어났다. “너 왜 그렇게 말 안 들어. 나한테 더 세게 때 맞자” 나는 운동화를 신고 한 손으로 아이 신발을 그러쥐고 독수리가 병아리를 가로채듯 아이를 가슴에 껴안았다. 문을 발로 차고</p>	<p>혁띠를 휘두르려 할 때 아이를 가슴에 껴안고 정신없이 도로 뛰쳐나가 조선족 운전수의 도움을 받아 교회로 뛰어오니 참상을 본 교인들이 피땀투성이가 된 나와 아들의 내의를 가려줌.</p>	



대상자의 구술내용	대상자 구술을 추출한 내용	대상자 언어로 종합한 내용
<p>정신없이 뛰쳐나왔다. 남자가 따라올까 봐 골목길로 이리저리 빠져나갔다. 도로에 택시가. 조선족 운전수였다. 나는 사정부터 이야기했다. 운전기사는 차를 세워 지나가는 택시로 나를 바꿔 타게 하였다. 교회 쪽으로 질러가는 곳에 이르자 택시를 세우고 미안하다는 인사를 거꾸 한 후 아이를 업은 채 교회 정문으로 뛰어들었다. 내의만 입고 있는 나와 아들을 본 교인들마다 참상이 기막혀 눈물을 흘렸다. 옷가지들을 가져다 나와 아들의 피와 땀투성이 내의를 가려주었다.</p>		
<p>한 여인과 함께 국경을 건너 처음 중국 땅에 들어가서는 방향은 내가 판단하고 조정하는 수밖에. 살을 찌르는 잠관목 가지들을 헤치고 강냉이 밭을 뚫고 나갔다. 장마철이라 흠탕물이 무릎까지 폭폭 빠졌다. 무산을 벗어나면서부터 대범해졌다. 위기의 순간에 부딪히면서 나는 놀라운 집중력이 발휘되면서 마음이 침착해지곤 하였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죽을 고생을. 세상 천지에 반겨 줄 사람 하나 없는데. 키를 넘는 강냉이 밭을 경황없이 헤쳐 나가는데 시가 가슴 속에서 용솨음쳐. '사랑과 자유!' 이는 내가 염원하는 모든 것./사랑이여, 너를 위함이라면/ 목숨을 바쳐 누우침 없으리라/허나 자유여/ 너를 위해서라면/내 사랑까지도 바치리라! 40년간의 추억과 사랑이 깃든 땅을 버리면서 강을 건너는 이유는 '자유'가 그리워서. 매질하던 조선족 남자로부터 아들과 탈출 후 교회에 들어서자 중국서 한국선교사가 탈북자 은신을 위해 빌린 아파트에 숨어 지냈다. 1999년 11월 연변에서 십 개월 은둔 생활이 끝나는 마지막 아침. 한국인 인술자가 사주는 차표를 받아 연변 땅을 떠나 사흘 만에 베이징 역에 내렸다. 네 가족 열한 명이 스스로 알아서 중국과 몽골 국경을 넘</p>	<p>장마에 흠탕물로 온몸이 떨렸으나 찌르는 잠관목 가지와 강냉이 밭을 뚫고 나가며 위기를 놀라운 집중력과 침착한 판단으로 조정함. 죽을 고생을 하며 고향, 부모형제, 스승과 벗을 모두 버리고 도강한 이유는 오로지 '자유'가 그리워서 임.</p> <p>매질하던 조선족 남자로부터 탈출 후 중국 내 한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1999년 11월 연변에서 십개월의 은둔생활을 마치고 베이징에 내림. 네 가족 열한명이 스스로 알아서 중국과 몽골 국경을 넘어</p>	<p>가시덤불과 흠탕물을 헤치고 오로지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얻기 위해 과거의 시공간에 모든 것을 묻고 힘겨움을 침착한 판단과 집중력으로 대처할 수 있었음은 내면의 강인성 덕분임. 불법체류자로서 중국에서 겪었던 온갖 굴욕을 다스리며 한국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북한 이탈주민들과의 공동로 염원하던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으나 기쁨보다 한(恨)이 솟구침.</p>

대상자의 구술내용	대상자 구술을 추출한 내용	대상자 언어로 종합한 내용
<p>어아. 나는 등에 네 살 난 아이를 업었기에 노상 뛰다시피. 대열에서 자꾸 처지자 중학 생이 대신 아이를 업어주었고. 춘희 아버지는 “빨리 못 따라실래? 죽으려 그래?” 무섭게 달구니 다들 잠잠. 한 걸음 움직일 힘이 남아 있지 않아 그대로 죽고 싶었다. 그렇게 일곱 개의 철조망을 넘었다. “손들었!” 외국 말이었으나 그 뜻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몽골 국경 수비대. 우리 일행 문제는 몽골대통령을 통해 해결되어 비행기를 타고 소원하던 꿈의 땅에 왔다. 반가움보다 쓸쓸한 생각이 먼저. 북한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이 지경으로 내몰았는가? 청진역을 숙소로 삼고 이틀에 한 끼씩 먹다 시피하며. 중국서 은거 생활하며 갖은 모욕을 다 받아내야 할 때 울지 못한 그 눈물들이. 김포공항을 나오며 한꺼번에 속으로 울고 또 울었다.</p>	<p>소원하던 꿈의 땅인 김포공항에 내렸으나 반가움보다 나를 이 지경으로 내몬 북한과 중국에서 받은 온갖 모욕이 떠올라 쓸쓸하여 속으로 울고 또 울었다.</p>	

2) 언어예술(Language-Art)

자녀 출산으로 생의 원숙함을 느꼈으나 시대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자립을 준비하나 이혼여성에 대한 낙인과 남편거주지에 살아야 하는 규정으로 궁핍해진 일상을 기차역 노숙생활로 버티다 시체와 비위생적 환경, 무질서, 굶주림의 고통으로 탈북을 결심하는 가치화(valuing)를 보여 주었다. 또한 재혼한 부친과의 갈등으로 여성공동합숙소 생활을 하니 독립이 가능해지고 이혼 후 생존을 위해 한족과 매매혼을 하려고 동반여성의 지지를 받으며 도강하여 중국으로 들어가나 갇힌 일상에 제한되어 탈출하려다 공안에 붙잡혔다. 하지만 이를 중국에 아들을 데려올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새로 조선족남성을 소개받는 가능성을 얻는다. 하지만 고된

가사노동과 중국시민이 될 수 없기에 떠날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하고 공안의 농촌가정 불시 검문으로 쫓겨나 또 다른 조선족 남성과 동거가 가능해진다. 그렇지만 가정폭력과 모멸감을 견디지 못해 탈출을 시도하여 조선족 운전기사과 중국 내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구사일생의 기회를 얻게 되는 가능-제한성(enabling-limiting)의 연속성을 나타내었다.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얻고자 과거를 묻고 내면의 강인성으로 대처하여 기도로 힘겨움을 견디었고 북한에서 난민으로 내몰린 삶과 불법체류자로서 중국에서 겪었던 온갖 굴욕을 다스리는 강화성(powering)과 한국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공조로 염원하던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으나 기쁨보다 한(恨)이 솟구치는 변형성(transforming)을 나타내었다.

### 3) 핵심개념에 대한 발견적 해석(Heuristic Interpretation for the Core Concepts)

본 과정은 경험의 구조를 이론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며 논리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창조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구조적 통합과 개념적 해석과정을 거친다. 구조적 통합과정에서는 형성된 구조를 인간되어감 이론의 구조로 통합하고, 개념적 해석과정에서는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을 사용하여 체험의 구조를 구체화한다.

<표 3> 핵심개념에 대한 발견적 해석

핵심개념	구조적전환	개념적 통합
1.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일탈로서의 탈북	1. 피폐해진 일상에서의 새로운 도전	가치화
2.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해체	2. 관계성을 활용한 생존기회 구축	가능-제한
3. 삶을 향한 애착과 불굴의 의지 발휘	3. 과거를 묻으며 강인성으로 버텨냄	강화성, 변형성

4.숫구치는 한을 끌어안음	4.과거의 응어리를 바라봄	
구조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일탈로서의 탈북이며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해체로서 삶을 향한 애착과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고, 숫구치는 한을 끌어안는 것이다.		
구조적 전환		
피폐해진 일상에서의 새로운 도전으로 관계성을 활용한 생존기회를 구축하고, 과거를 묻으며 강인성으로 버텨내며, 과거의 응어리를 바라보는 것이다.		
개념적 통합		
가치화와 상상화를 가능-제한하여 강화성과 변형성을 이루는 과정이다.		

북한이탈여성의 북한과 중국 생활에서의 탄력성의 핵심개념에 대한 발견적 해석은 1)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일탈로서의 탈북, 2)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해체, 3) 삶을 향한 애착과 불굴의 의지 발휘, 4) 숫구치는 한을 끌어안음이라는 네 개의 핵심개념으로 추출되었다. 네 개의 핵심개념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일탈로서의 탈북이며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해체로서 삶을 향한 애착과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고 숫구치는 한을 끌어안는 것’이라는 구조로 나타났다. 추출된 구조를 체험의 구조로 전환시키면 ‘피폐해진 일상에서의 새로운 도전으로 관계성을 활용한 생존기회를 구축하고, 과거를 묻으며 강인성으로 버텨내며, 과거의 응어리를 바라보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개념적 통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일탈로서의 탈북’을 경험하였다는 점이다. 대상자는 자녀출산을 통해 풍요로워진 삶의 원숙미를 갖추게 되나 극심해진 고난의 행군(식량난)으로 가정해체를 맞게 된다. 이혼에 접어들어 자립을 미리 준비해야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기혼여성은 남편을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기에 배우자의 거주 지역을 벗어나 살 수 없다는 사회적 규제,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붕괴된 식량 배급제로 인해 기차역에서 굶주림과 비위생적 환경을 견디며 노숙자가 됨, 시체를 보아

도 무감각해진 시민의 감정을 공유하며 ‘피폐해진 일상에서의 새로운 도전’으로서의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가치화’를 드러내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해체’를 경험하였다는 점이다. 대상자는 아버지의 독선과 자녀비판, 재혼으로 가족이 해체됨으로써 가족의 순기능은 ‘제한’되나 동시에 대상자의 독립적 생활의 시작은 홀로서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홀로 생존을 지켜야 했기에 자발적으로 선택했던 농촌 한족과의 가정생활은 북한 사람임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삶의 ‘제한’으로 갑갑해지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는 조선족 남성을 소개받으려는 ‘가능성’을 찾아 탈출을 시도하다 공안에 붙잡힌다. 핵 전문가인 전남편을 중국으로 데려오는 조건으로 처벌에서 벗어나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 전남편은 동행을 거절하면서 이들은 데려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어 탈북 후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조선족 남성을 소개받아 일본 거주 친척과 연락이 닿을 때까지 고된 가사노동과 샅일을 견디며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하지만, 공안의 농촌가정 불시검문과 주인 남성 자녀와의 갈등으로 쫓겨나 기대했던 ‘가능성’은 다시 ‘제한’된다. 낯선 이국에서 아내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다른 조선족 남성과의 관계로 되찾게 되나 성폭력과 구타로 이어지는 가혹한 생활은 난민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제한’시켰다. 하지만 조선족 남편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탈출하여 구사일생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개척하였다. 대상자는 중국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체류자로서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성을 활용하여 생존의 기회를 구축’하였다.

셋째, ‘삶을 향한 애착과 불굴의 의지 발휘’를 하였다라는 점이다. 대상자는 국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식량난의 고통과 재혼 남성과의 부조화된 결혼생활을 정리하면서 인식하게 된 이혼여성에 대한 낙인감에 굴하지 않고 생존을 향한 강한 애착을 ‘강화’시켰다. 사랑이 아닌 생존과 생활을 위해 선택했던 중국남성과의 가정생활로부터 치러야 했던

중노동, 구타, 굴욕을 받으면서도 언젠가는 자유를 찾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숨을 숙이며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강인하게 견디어 갔다. 위험천만한 국경을 아들을 찾기 위해 다시 오가기로 결심한 강인한 모성을 발휘하였고, 위기마다 수동적 삶이 아닌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 치룬 대가에 의미를 부여하며 견디어 가는 ‘강화성’을 보여주었다.

넷째, ‘숫구치는 한을 끌어안음’을 경험하였다는 점이다. 대상자는 자신이 북한을 떠난 것은 자발적 선택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북한이라는 모국의 제도적 병리로 인해 밀려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한국 입국이 마냥 기쁘기보다 내면의 아픔을 동반하게 되었다. 성공적 탈출의 기쁨과 동시에 얻게 된 과거 북한과 중국에서의 삶의 회한을 반영한 분노와 한, 과거의 응어리를 바라보게 되는 ‘변형성’을 보여주었다.

## 5. 결과 논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이 과거 북한과 제3국 생활에서 탄력성의 의미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이탈여성에게 있어서 탈북의 의미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이탈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극심한 수해와 기쁨으로 주요 식량인 옥수수의 80%이상이 손실되었다. 사회주의 중앙배급체제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은 서서히 접경국인 중국으로 국경이동을 시작하게 된다. 북한 당국은 사회혼란 속에서 민심을 규합하려고 추위와 굶주림에서도 100여 일 간 일본군에 저항하며 봄을 맞았다는 김일성 혁명구호인 ‘고난의 행군’을 10여년 이상 외쳤으나 민심을 통제하지 못했다(김현경, 2007). 지속된 식량 및 생필품 배급과

의료혜택 부족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어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국제난민기구(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등을 통한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북한 내 운송수단의 미비 및 분배의 투명성 부재로 3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아사가 발생하였고, 북한 내 일부지역은 1992년 이전부터 정기적인 배급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다(이금순 외,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선군 정치와 가부장제 인식 변화는 거의 찾기 힘들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더욱 많은 북한이탈여성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지역주민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자발적으로 중국국경을 건너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는 사적으로는 원가족 해체와 이혼여성이라는 낙인을 겪었고, 그녀를 둘러싼 북한 사회경제구조는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 다양한 위협요인들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서 결정하게 된 마지막 선택이 탈북이었던 것이다. 탈북은 북한이탈여성의 삶에 비전과 가능성, 희망이라는 탄력성을 부여한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여성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해체이다. 삶의 전략은 북한이탈주민들 간의 사회적 자본과 관계된다.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성에 기초한 자원으로, 제도화되었든 제도화되지 않았든 상호면식이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인 것이다. 북한이탈여성은 가족 또는 이웃 관계를 통해 북한을 탈출하고, 중국에서 생존하며, 새로운 사회에 보다 쉽게 들어오고 또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진미정 외, 2009). 사회적 자본의 활용은 탄력성과 관련될 수 있다. 탄력성이란 개인 혼자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도우려는 주변 타인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이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삶이란 의미 있는 것이며, 결국 해결되어진다는 확신이라 할 수 있는데, 탄력성은 오로지 개인 기질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개인을 돌

러싼 환경적 영향이 중요하게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Tedeschi and Calhoun, 1995, 1999). 본 연구 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의 협조에 힘입어 중국 국경 이동이 가능했고, 중국체류 역시 중국남성에게 결혼생활 제공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능했다. 북한이탈여성은 사회적 자본인 관계성을 활용하여 생존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이탈여성의 중국생활은 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서 머물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남성과의 결혼생활에서의 위기는 북한이탈여성에게 또 다른 대처자원을 찾아 나서게 하는 탄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교회의 협조를 구하거나 남한입국을 위한 브로커를 구하게 되는 등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여성을 병리적 관점이 아닌 강점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시도이다. 강점관점 실천에 있어서 대상자의 탄력성에 대한 의미 부여는 상당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북한 및 중국에서 심각한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행위, 태도, 성격, 병적문제 등으로 협소하게 다뤄지고 박해가 아닌 단순한 범죄 정도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사인(non-state)에 의한 박해'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국제법상 안전의 권리, 신체의 자유, 고문 또는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을 위반한 '박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박해는 국가의 무의지나 무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민지원, 2003). 선군문화인 북한의 가정폭력 수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홍민(2010)의 설문조사에서 북한에 있을 당시 여성들이 가정에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70%가 '그렇다'고 응답한 결과만으로도 북한의 여성폭력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 북한여성의 취약한 신분을 이용하는 중국남성의 폭력에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 역시 동거했던 중국남성에게 가혹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스로 가련한 여성이 아닌 뜻이 있는 여성이라는 자존감을 지키고자 했다. 즉, 내면적 자기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신체적으로는 중국남성의 거친 폭력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극한 상황에서도 자녀를 지키려는 강한 모성애를 발휘했으며,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면서 인내심으로 건디어 나아갔다. 이러한 모습은 김태현·노치영(2003)의 연구결과인 재중 북한이탈여성의 삶의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 진다.

넷째, 북한이탈여성의 설움과 한(恨)에 대한 것이다. 이때 한을 부정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한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은 원한과는 다르며, 절망감이나 복수심과는 차별된다. 한은 극복의 의지와 해함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는 역동적인 정서이다. 한이란 ‘삭임’의 과정을 통해 불행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 민족의 객관적 투사장치이며 승화장치로서 어두운 정서 상태를 발판으로 끊임 없이 밝고 건강한 방향을 지향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때 한은 화해의 지향성을 지니며 ‘장’으로 확산된다. 한에는 해결과 화해의 여지 및 의지가 존재하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함축되어 있으므로 탄력성의 개념과 접근방식과 상통한다고 제시되고 있다(양옥경·최명민, 2001; 천정웅 외, 2009). 본 연구대상자 역시 남한에 입국하면서 기쁨보다 설움과 한스러움이 치솟아 올랐다. 개인의 생존을 지켜주지 못했던 고국 그리고 불법체류자로서 숨 가쁘게 생존했던 중국 생활로부터 내면에 깊이 누적되었던 응어리를 눈물로 담아 내고 있었다. 그러한 내적 역동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있는 그대로 수용되어야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의 균형과 안정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6. 실천적 함의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여성의 과거 북한과 중국에서의 적극적인 삶의 역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시선을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 그녀들이 역경을 탄력적으로 이겨낸 주체적 존재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북한이탈여성을 원조하는 방법으로는 원치 않았지만 난민이주자의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녀들의 내재된 자생력과 강점을 믿고 이주 이후 남한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에 2010년부터 실행된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의 역할 활성화를 강조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제공해 주는 전문상담의 영향은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생활 적응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0년 11월부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중심으로 시작된 24시간 콜센터 운영 역시 서울 중심에서 확대하여 지역화에 초점을 두고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심리·사회·교육·경제·법률 정보와 지원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여성의 경제활동 탄력성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이에 여성친화적인 사회적 기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은 6곳, 2011년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여 총 26곳으로 증폭되었다(북한이탈주민연구지원센터, 2011).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는 북한이탈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유형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남한입국자의 70%이상이 북한이탈여성임을 인식할 때 여성친화적 일자리의 다양성 확보는 그녀들의 남한 생활의 탄력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태현·노치영(2003),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이야기2: 생존전략을 중심으로 한 중국생활체험”, 『대한가정학회지』, 제14권 12호, 229-243쪽.
- 김현경(2007), “난민으로서의 새터민의 외상 회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논문.
- \_\_\_\_\_ (2009), 『현상학으로 바라본 새터민(탈북이주자)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경험』,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 \_\_\_\_\_ (2010), “북한이탈주민의 고문으로 인한 외상 후 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제41권 3호, 81-106쪽.
- 김현경·전우택(2009),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이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40권 2호, 363-397쪽.
- 노춘희·이옥자·이정숙 외 옮김(2007), 『인간되어감 이론으로 본 지역사회 공동체』, 서울: 현문사, Parse, R. R.(2003), *Community: A Human Becoming Perspective*, Boston: Jones and Bartlett Pub.
- 민지원(2003), “난민자격을 결정기준으로서의 ‘젠더’박해: 북한여성의 난민자격 가능성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20집, 3-37쪽.
- 박정현(2006), “북한의 경제난과 여성의 역할 연구”, 경기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 북한이탈주민 연구지원센터(2011),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성 평가,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사업효과성 평가, 상시 종합상담센터(콜센터) 운영 효과성 평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회 자료집(2011. 11. 25).
- 심영희(2006),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요인”, 『아시아 연구』, 제45권 2

호, 151-194쪽.

양옥경·최명민(2001), “한국인의 한(恨)과 탄력성(resilience): 정신보건사회사업에의 적용”,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1권, 7-29쪽.

양옥경·최소연·송인석 외 옮김(2004), 『사회복지와 탄력성』, 서울: 나눔의집, Greene, R. R.(ed.)(2002), *Resiliency: An Integrated Approach to Practice, Policy, and Research*,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Washington, D. C.: INC.

이금순·김규륜·김영운 외(200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이민영·김현경(2007), “새터민 여성의 이주로 인한 상실의 극복 체험: 남한 남성과 결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5권 겨울호, 525-554쪽.

이승진(2005),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에란(2008), “북한여성들이 사회생활에서 당하는 인권침해 실태: 가혹한 노동자 성폭행에 시달리고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없는 북한여성들”, 『북한 리포트』, 3월호, 104-111쪽.

이효선(2005), 『질적연구(해석과 이해)』, 서울: 학현사.

이화진(2010),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 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 탈북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진미정·이순형·김창대(2009), 『탈북인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자본』, 서울: 학지사.

최진이(2005), 『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 경기: 북하우스.

천정웅·김미옥·최명민 외(2009), 『강점관점 청소년개발 레질리언스』, 서울: 신정.

- 통일부(2011), 북한이탈주민 입국 통계자료.
- 홍민(2010), “북한여성인권침해”, 박선영의원 주최 제26회 정책 세미나 자료  
집(2010. 4. 28).
- 황성동(2007), 『알기 쉬운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학지사.
- Guba, E., and Lincoln, Y.(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 Bass.
- Kim, H. Y., and Lee, O. J.(2009),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Experience for North Korean Refugees”, *Nursing Science Quarterly*,  
22(1), pp. 85-88.
- Kim, H. Y., Lee, O. J., and Baumann, S. L.(2011), “Nursing Practice  
with Families Without a Country”, *Nursing Science Quarterly*,  
24(3), pp. 273-278.
- Parse, R. R.(1992), “Human Becoming: Parse’s Theory of Nursing”,  
*Nursing Science Quarterly*, 5, pp. 35-42.
- \_\_\_\_\_ (2009), “Living with Changing Expectations for Women  
with High-risk Pregnancies”, *Nursing Science Quarterly*, 22(1), pp.  
74-82.
- Tedeschi, R., and Calhoun, L.(1995), *Trauma &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Thousand Oaks, CA: Sage.
- \_\_\_\_\_ (1999), *Facilitating Posttraumatic Growth: A  
Clinician’s Guid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원고접수: 2011. 08. 09

원고수정: 2011. 10. 30

게재확정: 2011. 11. 10

〈Abstract〉

## Lived Experience of Resilience for North Korean Refugee Woman Who Has Lived in North Korea and China

Hyun-Kyoung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lived experience of resilience for North Korean refugee woman who has lived in North Korea and China by knowing the meaning and structure of empirical phenomena. Methods were applied to Phenomenological and heuristic Human Becoming Methodology, and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the text of a North Korean refugee woman's autobiography. Results were the structures of 'escaping the North for new possibility,' 'formation and dissolution of social capital,' 'attachment and strong willingness for life,' and 'embracing resentment'. The structural transpositions were the following: 'new challenge against destroyed daily life'; 'making a chance for survival by constructing relationships'; 'enduring suffering with hardiness'; and 'reflecting on resentment of the past'. The conceptual integration of relationship issues were powering enabling-limiting in valuing with transforming. Finally, it's relation to feminism was reviewed.

**KEY WORDS:** North Korean woman refugee, Resilience, North Korea, China, Parse's Human Becoming Methodology.